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국방대학교



www.kndu.ac.kr





국가안보 정책 · 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

# 월간 국방대

Vol. 70      2024. 3.

발행인 임기훈   편집주간 홍태영   편집간사 손종원   편집담당 오승재

발행 국방대학교 대외협력실 홍보과   Tel. 041-831-6331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디자인/인쇄 (주)복사꽃사람들

04

## 안보정세전망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

06

## KNDU 뉴스레터

11

## 자랑스러운 국방대인을 찾아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16안보과정)

14

## 특별기고

K-방산 수출금융,  
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의 조건  
▶ KIET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  
장원준 연구위원

17

## 국방대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국가 안보정책 분야 최고의 교육과정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핵WMD  
대응연구센터장 설인호 교수

20

## 외국군을 소개합니다

국경을 넘은 소통  
▶ 이라크 육군 준장 사이드  
▶ 아집트 육군 준장 모하메드  
▶ 파키스탄 육군 준장 아티프

26

## GLOBAL KNDU





##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

### 미국과 자유주의 제도 국제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는 미국이 구상하고 선도한 탈식민지, 탈제국주의에 기반한 신 국제질서였다. 기존의 제국주의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하였던 자유주의 제도 하의 국제질서(Liberal Institutional World Order) 수립이 국제사회에서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 연맹은 미국 내 야당인 공화

당의 반대로 결국 좌절하게 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는 우드로 윌슨 내각에서 국제 연맹의 실패를 경험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구상이 구현되게 되었고, 이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보수주의 현실주의자 대통령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정신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리와 책임이 전제가 된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의 탄생, 세계은행(The World Bank), 국제 통화기금(IMF)의 출범 등이 자유주의 제도 국제질서의 핵심축이었다. 물론 미국과 소련 중심의 자유주의 대공산주의 진영 대립이라는 냉전도 동시에 시작 되기도 하였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냉전기가 종식된 이후 미국의 세계 선도의 역할과 패권국의 지위는 공고했다. 미국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가 거론되던 탈냉전기 미국의 국제 경찰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을 보호하는 리더 국가 지위를 공고히 했다. 테러와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부상 등은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였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국내적으로 글로벌 선두 국가의 의지와 역량 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신 냉전기 미국은 트럼프즘의 공고화 속에서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변동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선두 국가로 인한 외연 확대를 반대하는 거센 요구에 대응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의 다극 질서 등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미국의 현 상황은 국제질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패권국으로 역량이 이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제사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기존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의 주류 외교 안보 정책과 전혀 다른 경험을 했던 국제사회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 2024년 미국 대선の特徴과 시나리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있는 2024년 미국 대선은 중요도나 구체적인 선거 항배는 이미 많은 국내외 언론 등에서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가능성에 주목하여, 많은 국가들은 1기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대응 전략들을 고심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으며, 시나리오별 전망이 가능하다. 2024년 미국 대선은 최근 2020년과 2016년과 다른 상황에서 펼쳐진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더욱 부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만과 경제 안보 등을 중심으로 한 신 냉전의 긴장 국면이 매우 높아졌다. 또 다른 점은 이전에 크림반도 합병이나 미국 대선의 러시아 개입 등을 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제도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룰이 무너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의 대응도 제재와 무기 지원에 그치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이었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의 지속성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은 이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차이로 양 대선 후보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2016년과 2020년 선거보다 트럼프즘이 확산세와 강고함은 더욱 견고해졌다. 2020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2016년 예상 밖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비주류의 일시적 이벤트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2020년에서 4년이 흐른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이상 숨으려고 하는 사이 트럼프 이면서 시골 지역에 사는 고졸 이하의 백인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인도,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도시 지역의 중산층과 여론 주도층 들을 포함한 다인종 범계층 지지자로 확장되었고, 이들은 본인이 트럼프 지지자임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사회 문화 이슈로 갈라진 미국 내 사회 문화 분야 보수주의 기독교 신자들도 지지자들로 확장되었다. 즉, 2016년이나 2020년보다 트럼프즘이 확장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2기를 출범한다고 해도 이후 중간 선거 등 모든 분야에서 확장된 트럼프즘을 반영한 국내외 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미국 대선은 바이든 행정부 2기 혹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2기 출범은 트럼프즘을 일시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미국 내 수요를 반영한 국내외 정책 재조정이 지속될 것이며, 이후 중간 선거에서도 이러한 여파가 반영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이 결국 1기 동안 착한 트럼프즘이란 외부의 평가가 있었던 면도 트럼프 및 공화당 지지자 등의 비판과 정서를 고려한 정책 행보였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이는 1기 때 경험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추진할 인사들로 내각과 백악관, 의회가 구성되고, 핵심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스타일의 인사들은 더 이상 중용되지 않을 것이며, 전문성이나 평판이 없던 이들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추진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어, 더욱 더 과감하고 강한 추진력의 국내외 정책들이 구현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업적을 위한 과감한 추진과 차기 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주 목표가 될 것이다.

###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결국 2024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를 기반으로 한반도에 대한 유사한 정책적 추진이 실행될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트럼프 어드벤처지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민주당 공화당 모든 세력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 국민들의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람이나 논평을 넘어서서, 차기 집권한 미국 행정부와 한미 모두의 국익 증진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재조정, 경제 무역 관세 등 다양한 경험과 교훈들이 축적되어 있다. 국익의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승자가 되는 다양한 준비를 구축해야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모두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내적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미국 정부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지혜와 전략이기 때문이다.





## NEWS 1

## 국방대학교 2023년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 육·해·공군·해병대 장교·민간인 등 국가안보의 주역 141명 졸업
-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국방과학의 각 전공 분야 이론과 실무 응용능력 배양
- 외국군 수탁장교 3개국 3명도 함께 졸업

국방대학교는 1월 5일, 오후 2시 국방대학교(충남 논산시 소재) 본교 컨벤션센터 세종대강당에서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학위과정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현역 간부와 공무원, 민간인 등 141명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올해 학위과정은 박사 6명, 주간 석사 120명, 야간 석사 15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캄보디아 잔르티 육군 소령, 베트남 동다우 육군 소령, 미얀마 조 육군 대위, 3개국 3명의 외국군 수탁생도 포함됐다.

졸업생 중 국방부장관상의 영예는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미리 육군 소령(진)(육사 70기)이, 육군참모총장상은 송주연 육군 대위(육사 73기)가, 해군참모총장상은 최태수 육군 대위(학군 53기)가, 공군참모총장상은 이보라 육군 대위(학군 53기)가, 해병대사령관상은 한정경 해군 소령(진)(해사 69기)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방대학교총장상으로 △성적우수상은 정가람 육군 소령 등 14명, △우수논문상은 이상우 공군 소령 등 15명, △공로상은 외국군 3명이 수상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군사적 긴장과 대남 도발 위협이 증대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직시해 '강력한 국방,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졸업생들이 수여 받은 박사와 석사학위는 장차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국가와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 교육기관 국방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본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배출된 141명의 졸업생(야간 석사 15명 포함)중 군사전략 전공의 박충제(70)씨는 만학(晩學)도로 약 4년간 학업을 모두 이수하여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무기체계 전공의 최태수 육군 대위는 재학 중 최상급 SCIE 학술지 Materials에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들은 졸업 후, 전·후방 각 분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국방대학교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 NEWS 2

## 국방대학교 2024년 안보과정 입교식

-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고위공무원 등 234명 입교
- 이라크·이집트·파키스탄 준장 3명을 포함한 외국군 수탁생 16명
- 국방대 안보과정, 국무총리 4명, 장·차관 367명, 국회의원 18명 배출

국방대학교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방대학교(충남 논산시 소재) 본교 컨벤션센터 세종대강당에서 안보과정 입교생 및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안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월초 가입교한 육·해·공군·해병대 대령급 장교 75명을 비롯해 국·과장급 공무원 75명, 공공기관 임원 68명이 입교했다. 또한, 이집트에서 온 사하드(SAAD LAZIM AL-HRAISHAWI) 육군 준장 등 장성 3명을 포함한 16개국 16명의 외국군 장교가 수탁생으로 입교했다.



안보과정에 입교한 이들은 45주 동안 ▲국제안보정세 분석 ▲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 ▲국내정세 분석 ▲국방·군사전략 ▲국방과학기술과 미래전략 ▲국내·외 현장학습 ▲언론 집중교육 ▲국가안보종합연습 등의 교육을 통해 국가안보 정책 수립 및 관리능력을 배우게 된다.

교육을 위해 국방대학교 교수진을 포함하여 중앙부처 장관, 군 주요직위자 등 국내외 안보관련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은 환영 축사를 통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6·25전쟁 이후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민·관·군의 최고 안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55년 개설됐다. 그동

안 안보과정은 국무총리와 장·차관, 국회의원 등 많은 국가 지도자를 배출해 온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정책 수립과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1955년 8월 15일 국방대학교 창설 이래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졸업생들은 정부 부처, 군 주요 직위 등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학교 주요 동정 (1~2월)



▲ 1.3.(수) '24학년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 1.3.(수) '24학년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 1.10.(수) 안보과정 특강



▲ 1.10.(수) 안보과정 특강



▲ 1.16.(화) 2024년도 국방대 교직원 신년회



▲ 1.16.(화) 2024년도 국방대 교직원 신년회



▲ 1.17.(수) 국방대학교 임기훈 총장 발전기금 기부



▲ 1.17.(수) 국방대학교 임기훈 총장 발전기금 기부





▲ 1.19.(금)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육군 정책실 업무협약식  
MOU 체결



▲ 1.19.(금)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육군 정책실 MOU 체결



▲ 2.1.(목) 2023년도 직무과정 우수강사 시상식



▲ 2.1.(목) 2023년도 직무과정 우수강사 시상식



▲ 2.2.(금) 2024년 제1차 국가안보오찬포럼 개최



▲ 2.2.(금) 2024년 제1차 국가안보오찬포럼 개최



▲ 2.15.(목) 제3차 RINSA 세미나



▲ 2.15.(목) 제3차 RINSA 세미나

“

##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이끌고 있는 방위사업청!  
최근에는 K-방산을 통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선두에 있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16안보과정)

”

Q1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문님 최근 근황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동문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안보 교육의 최고 요람인 안전보장대학원 '16안보과정을  
졸업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  
사업본부장 조현기입니다.  
1년여 기간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동향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추고 현재는 육·해·공군·해병대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요즘 K-방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방위  
사업청이 이런 K-방산의 중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어떤 곳인지요?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지원 및 육성, 국방과학기술 진흥 업무 등의 방위사업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2006년 1월에 출범하였  
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공무원과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위  
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을 통한 국가안보적 편익의 극대화와  
더불어 기업의 산업적 이익의 접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위산업을 내수에  
그치지 않고 방산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집중하고 있습니  
다.



Q3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방산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동문님이 생각하는 방산수출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06년 당시 우리나라 방산수출액이 2억불 수준이었고요, 10배가 된 시기가 2010년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규모가 3자리 숫자로 된 것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폴란드에 K2전차와 K9자주포, FA-50항공기, 다련장인 천무를 수출 하였던 2022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수출을 통하여 우리 기업은 수년 후 생산물량까지 확보하면서 계획 경영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와 같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우리 기업은 공급경쟁력 측면에서 다수의 잠재적 계약상대국 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은 물론 이것이 추후 우리 무기체계의 방산 수출 핵심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방산수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안보의 핵심수단인 무기 체계를 상대국과 공유하게 되고, 전시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판매한 무기체계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Q4

전력증강과 방산육성,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방위사업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방위사업청의 기본 임무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3축체계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을 통한 안정적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스텔스전투기 추가 구매, 군 전용 정찰 위성 발사,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 수단인 L-SAM 조기 개발과 M-SAM 양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진수, 타격자산의 고위력·초정밀·장사정화 등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는 물론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이고 신속한 획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5년내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 활성화,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행정절차 단축과 연구개발 절차의 통합으로 사업기간 단축,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통한 혁신적 사업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매년 약 4조원 이상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중 방위사업청이 직접 집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는 약 2조원 이상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방분야 R&D에 참여하는 다양한 산·학·연의 도전적 R&D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적용된 계약 관련 과도한 규제는 지난 23년 10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방위사업 계약체계 적용으로 규제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7년까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AI·우주·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5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 대상 기업 발굴과 이들에 대한 혁신적 지원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전략적 선정 및 집중 관리는 물론, 이들 기업이 협상부터 계약 이행까지 방산 수출 전 단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One-stop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우리 군 전력증강과 K-방산 역량에 선순환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방산수출 대상국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하여 지난 2년 동안 달성한 평균 수출수주액 150억불 이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Q5

동문님이 다시 한 번 안보과정에 들어오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안보과정은 공직 후반기에 무엇 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을 얻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동문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잇을 수 없는 추억을 쌓게 됨으로써 그 무엇 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안보과정을 졸업하고 자신의 근무지로 복귀하여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문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년이란 기간 동안 동문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끈끈한 인연은 각자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시너지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보과정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안보과정에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16안보과정 동기들과 재입학의 영광을 누리고 싶네요.



## K-방산 수출금융,

## 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의 조건



KIET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  
장원준 연구위원

- (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2022 자랑스런 방산인(방산학술상)
- (전)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 (현) 한국학신학회 부회장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 (전) 미 CSIS 객원연구원
- (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최근 폴란드 무기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가 화두다. 작년 12월 폴란드 새정부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친 EU 성향의 투스크 신임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한국의 방산수출금융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심지어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마주한 지리적 특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전력 공백 보충의 시급성, 미국, 독일 등 우방국들의 단기간 내 무기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폴란드가 한국과의 잔여 무기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에 대한 논쟁과 지연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K-방산은 전 세계의 호평을 받으며 상승장구하고 있다. 최근 3년(2021~23)간 무기수출(수주 기준)은 무려 38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동유럽(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뿐만 아니라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북아프리카(이집트 등)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2024)에 따르면, K-방산은 전 세계 30여 개 국에 1,200억 달러의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다.

어쩌면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를 맞이한 K-방산이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격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수십년 전부터 무기 구매국들에게 장기(50년), 초저리(1% 미만) 금리와 차관 제공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수출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루속히 방산수출금융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접고 수은법을 개정하여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을 마무리짓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만일, 수은법 개정 지연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계약이 철회라도 될 경우, 국민적 비난은 물론 K-방산의 글로벌 4강 진입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방산을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수은법 개정을 고대해 본다.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oundation

##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국가안보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관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는 최신 안보 연구와 최상의 교육, 민간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 중심축이자, 세계의 안보 허브로 성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루가 늦는다면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는 두 발 늦게 다가 올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국방대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큰학교(國防大),  
큰나라(大韓民國)의  
울타리(國家安保)가 됩니다

**KNDU** Foundation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www.kndufund.or.kr Tel. 041-733-2318

후원  
계좌

국민은행 598601-04-042100  
우리은행 1005-601-962256  
농협 301-0093-5813-21

우체국 012583-01-008070  
신한은행 100-027-720930

국방대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국가 안보정책 분야 최고의 교육과정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는 광범위한 국가안보, 국방, 군사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정세 분석과 국가 안보·국방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 교육 과정을 개설, 제공해 왔다. 2024년도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를 맡는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이자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핵WMD대응연구센터장 설인호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핵WMD대응연구센터장  
설인호 교수

# 1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과정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국가안보실과 국회, 국방부와 합참, 언론사 등 재경지역 안보관련 핵심 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직자와 중견장교, 부장급 이상의 언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강좌는 매주 목요일 저녁 용산에 위치한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총 12회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며 3월 21일 첫 강좌가 시작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책수립과 여론 형성을 위해 안보, 국방 분야 지식의 전파와 확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는 국방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만큼 강좌 기획과 강사진, 교육 내용 등에서 가장 전문성 높은 교육 과정이라고 자부합니다.



## 2

### 국방대학교에서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글로벌 국제질서, 지역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종사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제공하는 본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의 최신 분석 내용을 접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한국의 안보, 국방정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광범위한

안보, 국방 관련 종사자들이 12회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강좌가 단순한 강의 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질의 응답과 토론의 시간도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이 상호 토론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방대학교는 일정 회수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국방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 3

### 그동안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가 운영되어 온 경과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2019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줌 화상 강의 방식 등을 활용하여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인 2023년부터 다시 오프라인 강좌를 시작하여 올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과장급 이상의 정부부처 공직자, 대령급의 현역 군인, 부장급 이상의 언론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한 해 수강인원이 30여 명에서 50여 명에 이르며 해당 회차가 종료된 후에도 수강생 사이의 친목 모임이 유지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여 왔습니다.

재경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와주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한편 본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드러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차를 거듭할수록 안보, 국방 주제에 고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합참 근무자들 뿐 아니라 언론인, 방산 관련 기업인들 등 참여의 범위도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재개된 대면 강좌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 올해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의 특성과 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과 많은 도전 요인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올해 본 과정은 글로벌과 지역, 한반도 안보환경 전반을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관련 핵심 이슈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해안을 담고자 기획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제공될 강좌는 한국의 전략환경과 국가안보전략, 미중 전략경쟁의 현황과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 북한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과 같은 안보환경 분석, 전망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전략, 한국의 핵 대응전략,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육성 전략, 국방 AI와 반도체 전쟁 등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주제들의 강사진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국방대학교

교수진과 유수의 국내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이춘주 국방대 안보대학원장 등과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소장인 이근욱 교수, AI와 반도체 관련 최고 전문가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방위산업 최고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장원준 박사 등을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 김병대 정책실장, 전 외교부 국방협력관을 지낸 함형필 박사 등도 함께 모셨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5

### 이번 과정에 참가하게 될 수강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에 수강을 신청하신 수강생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12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시간을 할애할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바쁜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밤에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결정은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국방대학교와 국가안보

문제연구소는 그러한 열정에 걸맞은 최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최종 완성은 결국 수강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경을 넘은 소통

한국에서 만난  
이라크 & 이집트 & 파키스탄  
장교의 이야기



이라크 육군 준장 사아드

이집트 육군 준장 모하메드

파키스탄 육군 준장 아티프

Q

### 먼저 독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사아드** \_ 저는 이라크 육군 준장 사아드 라짐 알 라사위입니다. 저는 1974년 8월 12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1959년에 이라크 남부, 마이산주 아마라시에서 바그다드로 건너온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와 네 자녀, 두 딸과 두 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네 자매, 네 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고, 대학에 다니는 세 자녀도 모국에 머물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큰딸 Fatima는 미국 역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Zahraa는 약학

학사 학위를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고, 아들 Muhammad Baqir는 항공기 공학 학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93년 이라크 제1 군사대학에 입학해 '95년 소위로 졸업하여 '03년까지 제1 관측장교, 포진장교, 포대 사령관 등을 거쳐 군생활을 하였고,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의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라크군이 해산된 2004년 12월 29일 이라크 신민주 정권 수립 후 이라크군으로 다시 복귀해 정보장교로 근무했습니다. '07년에 작전부장, 정보부장 등의 임무수행 후 연대장을 거쳐 '17년부터 '21년까지 포병여단 사령관, '21년부터 '23년까지 사단사령부 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23년에 국방 대학교로 지원하여 올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모하메드** \_ 저는 이집트 육군 준장 모하메드 모스타파 사에드 모르시입니다. 저는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은 아내, 아들 3명과 딸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생,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막내 아들과 딸은 쌍둥이로 초등학생입니다. 제 가족은 2023년 6월에 저와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현재는 첫째 아들이 대학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집트로 귀국한 상태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에 친절한 나라입니다. 더불어 저는 2013년에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이전에도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역사가 깊고, 교육기관에서 최상의 교육결과와 최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폭넓은 지식을 가르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학생의 효율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장교들이 친절하고 잘 도와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는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 이집트 군사학교에서 군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0년에는 지휘참모대학에서 군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에 한국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기본과정을 수료했으며, 2021년에는 니제르 고등군사학교에서 고등전쟁대학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포병 병과로서 모든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아티프** \_ 저는 파키스탄 육군 준장 사이드 아티프 무나와르 사입니다. 1975년에 태어나 1993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실제 전쟁의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 보병 연대를 선택했고, 지난 31년 동안 '자랑스러운 보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 퀘타의 '지휘참모대학'에서 참모 과정을 수료했고, 2015년에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국방대학교에서 '국가 안보와 전쟁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정치학 학사, 전쟁학 및 전쟁술 석사, 안보 및 전쟁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필수 과정 외에도 사막전, 설상전, 대테러 작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지형과 환경에서 다양한 지휘관, 참모 및 교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서부 국경에서 보병 대대와 여단을 지휘하며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교육 과정에 참석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Q

### 고국에 대한 소개와 추천해줄 수 있는 관광 거리가 있나요?

**사아드** \_ 이라크는 서아시아의 중동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4,600만 명이 넘으며 아시아 대륙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18개의 주(州)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북쪽으로 터키, 동쪽으로 이란, 남동쪽으로 아라비아만과 쿠웨이트,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으로 요르단, 서쪽으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바그다드이며, 대부분의 이라크인은 무슬림입니다. 소수 신앙으로 기독교, 야지디교, 만다교, 야르산교,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아랍어와 쿠르드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이맘 알리의 성소(Imam Ali Holy Shrine), 이맘 후세인의 성지(Holy Shrine Of Imam Hossain), 아바스 성지(Abbas's shrine), 우르의 지구라트(Great Ziggurat of Ur), 이슈타르 문(Ishtar Gate) 등 고대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 SAAD |  
이라크 육군 준장 사아드



▲ 이슈타르의 문





**모하메드** \_ 이집트는 이슬람 아랍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일부(시나이 반도)는 아시아에 속해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로인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 문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탄생한 웅대한 역사를 가진 독특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와 �핑크스상과 같이 놀라움을 자아내는 파라오 문명의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카르낙 신전, 아부 심벨 신전, 룩소 신전, 핫셰프(Hatshepsut) 묘전과 같은 파라오 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박물관, 이집트대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자르(Azhar) 모스크, 모하마드 알리 모스크, 공중 교회, 성 캐서린 수도원과 같이 유명한 이슬람 및 기독교 유적지도 있습니다. 또한 칸 엘-카리리(Khan el-khalili)와 같이 옛 수공예품을 파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나일강이 이집트를 통과합니다. 나일강을 통해 한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서 룩소(Luxor)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파라오 문명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여정은 굉장히 놀랍고 즐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일강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식당과 호텔이 많이 있으며 유명한 이집트의 관광지 중 하나인 카이로 타워(The Cairo Tower)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해변 또한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 이집트가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위치하여 이러한 지형적 특징 덕분에 다양한 수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해변은 홍해 아래의 신비로운 산호초라는 이목을 끌고 매력적인 볼거리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중해는 하얗고 부드러운 모래와 맑은 푸른 빛의 바다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수영과 즐거운 수중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명하고 독특한 이집트의 음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바 콩(fava beans), 팔라펠(Falafel)과 샐러드로 구성된 이집트 전통 조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시골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이집트식 파이가 있는데, 꿀 그리고 크림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식 코샤리(Koshary), 케밥과 코프타(Kofta), 이집트식 파타(Fattah), 또는 혼합 동양 음식과 같이 유명한 이집트식 동양 음식이 있습니다. 더불어 쿠나파(Kunafa), 바스부사(Basbousa), 바클라바(Baklava), 이집트식 츠러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서양식 디저트도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는 이전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문명들의 독특한 혼합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문화는 파라오 문명의 문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아랍 문화까지 뒤섞인 혼합물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문화가 지금의 이집트 문화를 형성한 기반이고 매우 특별하여 직접 경험해보시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티프** \_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파키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파키스탄은 동쪽은 인도, 북쪽은 중국, 서쪽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남쪽은 아라비아해(인도양)와 국경을 접한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토 면적은 세계에서 33번째로 크지만 인구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파키스탄은 ‘핵 보





유국'이며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8500년 된 신석기 유적지를 비롯한 여러 고대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파키스탄은 해변, 사막, 평원, 높은 산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K2)와 극지방이 아닌 곳 중 가장 긴 빙하 3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파키스탄 사람들의 풍부한 문화와 요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친절함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며 이외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가 수도이며 카라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파키스탄 요리는 그 맛과 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고기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비리야니, 코르마, 니하리 와 같은 요리는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 Q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사아드** \_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할랄 음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김치, 김밥, 맛있는 해산물 등 정말 맛있고 영양이 있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K문화, 그중에서 한국 노래 부르기, 드라마 보기, 아름다운 한복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_ 한국은 연장자를 매우 존경하는 독특한 문화가 특징적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매력적인 신비로운 자연, 사계절의 뚜렷한 특징들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꼭 경험해야 합니다. 현재 가족들과 한국 음식을 즐기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김치, 김밥, 그리고 비빔밥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멋진 자연경관, 문화, 전통, 그리고 최신 기술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과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할 때 힘들

었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영문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어 공부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생활이 수월해졌습니다. 외국인 수탁장교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글과 한국의 생활양식을 미리 공부한다면 한국에 도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티프** \_ 저는 2023년 2월 11일 한국에 도착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국방어학원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저의 가족은 뒤늦게 2023년 7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홀로 한국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살기까지, 저는 문화와 전통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포용적인 한국 사회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겼습니다. 한국의 많은 유적지와 유원지, 식당, 쇼핑몰을 방문했고, 친절한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프라 개발 등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과 접목, 의료보험과 같은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 공공성 중심의 성숙한 제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적응과 수용은 한국이 진정한 일류 국가라는 것과 문명화된 사회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신이 선물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과 군침을 돌게 하는 다양한 음식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국방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특히 저의 교관들)들의 전문성, 예의, 애정, 배려심, 친절함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방어학원 교관들은 제가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학원에서 받았던 예의와 친절과 더불어 국방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환대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느낀 유일한 단점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한된 편의성(공식, 소셜 및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영어 인터페이스가 덜 활성화되어 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언어 장벽이 그 사회와 문화를 체험하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기에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여행하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Q 국방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아드** \_ 올해는 가족과 함께 서울, 부산, 제주도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과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조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한 국방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한국 간의 군사분야(무기, 장비, 훈련, 현대 정보 기술 분야 등)에 대한 폭넓은 협력을 위해 좀 더 깊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모하메드** \_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한글을 능숙하게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학업에 임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진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과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넓은 통찰력을 얻고 싶습니다. 군의 훈련과 무장이 국가안보의 기본이기에 고국에 돌아가서는 이집트 육군의 훈련과 무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세계 각국의 장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쌓아 가고 싶고, 이집트와 한국 간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한국에서 많은 곳을 여행하고 탐험하는 것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 깊은 국방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세계 각국의 장교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비전과 강한 유대감 형성 등을 마련해준 국방대학교와 대한민국 국방부에 감사드립니다.

**아티프** \_ 국방대학교의 안보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공되는 커리큘럼과 한국의 최고 싱크탱크와의 교류는 모두에게 군의 사고 과정과 정신적 지평을 넓힐 것입니다. 안보와 전쟁 연구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과정의 정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귀국 후에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파키스탄과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ntroducing our International Student Officers - National Security Course



Iraq

SAAD LAZIM  
AL-HRAISHAWI

Egypt

Mohamed Mostafa  
Sayed Morsy

Pakistan

Atif Munawwar  
Shah

Q

###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the readers

**SAAD** \_ I'm Brigadier General SAAD LAZIM AL-HRAISHAWI from the Iraqi Ground Forces. I was born in Baghdad, the capital of Iraq, at 12th August, 1974 to my parents who came from Amara city, Maysan. I have my wife, 4 children, 2 daughters and 2 sons in my family, and I have my father, mother, 4 sisters and 3 brothers in my big family. I came to Korea with my beloved wife and my younger son. The other 3 children who are attending university are staying in Iraq planning to visit

Korea at summer vacation. My eldest daughter Fatima is studying for her PhD in American history. My younger daughter Zahraa is studying for her Bachelor's Degree in Pharmacy, and my son Muhammad Baqir is studying for his Bachelor's Degree in Aeronautical Engineering. I enrolled in the Iraqi First Military College in 1993 and was commissioned as a second lieutenant in 1995. Until 2003, I was served as the artillery observer, artillery position officer and the artillery battalion commander. In 2003, The Iraqi Forces were dismissed by the multinational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Saddam Hussein stepped down from

his power. After a new democratic administrative was established at 29 December, 2004, I returned to the Iraqi Forces and served as an intelligence officer. I finished my assignments as the Director of Operations and Intelligence in 2007, and after serving as the Regiment Commander I was assigned as the Artillery Brigade Commander from 2017 to 2021, and as the Chief of Staff of the Artillery Division Command from 2021 to 2023. I applied for KNDU in 2023 and enrolled in the KNDU National Security Course this year.

**Mohamed** \_ My name is Mohamed Mostafa Sayed Morsy and I am a Brigadier General in the Egyptian Army and I was born in 1975.

My family consists of 5 persons, My wife. 3 sons and a daughter. My eldest son is a college student and the middle son is a high schooler while the youngest son and the daughter are twins and they are in the primary school.

They came to Korea in the June of 2023 and at the moment they are all with me except my eldest son which returned to Egypt to continue his college studies while my other children are studying here in Korea.

Korea is a friendly country to Egypt, In addition to that I had previous experience in studying here in Korea since I already studied in the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back in 2013 and I know that the Korean army is a deep-rooted army and they provide ways of knowledge in their educational facilities, give new ideas and effective participation between students to achieve the best results and deduce the best ideas possible, In addition to that I already know that the Korean officers are friendly and helpful which will be in my aid to study more easily in KNDU.

and I got a Bachelor's degree in Military Sciences from the Egyptian Military Academy in 1996. – I got a Master's degree in Military Sciences from the College of Command and Staff in 2010. I got the Joint Standard Course from the Korean Joint Military Forces University in 2013, I got a Fellowship of the Higher War College from Nasser Higher Military Academy in 2021. I got all the compulsory and specialized courses in Artillery.

**ATIF** \_ I am Brigadier General Syed Atif Munawwar Shah from Pakistan Army. I was born in 1975 and joined the military services in 1993. Obsessed to experience real feel of battlefield, I opted to join Infantry Regiment and hence I am 'Proud Infanterian' since last 31 years.

I did my Staff Course in 2009 from 'Command and Staff College', Quetta, Pakistan and attended 'National Security and War Course' in 2015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slamabad, Pakistan. I am Bachelors in Political science, Masters in Science and Art of Warfare and Masters in Security and Warfare Studies. Besides mandatory courses, I am also qualified in Dessert warfare, Snow warfare and Anti Terrorist Operations. I have served in all kind of terrains and environment on various Command, Staff and Instruction Appointments. I commanded Infantry Battalion and Brigade along western borders; employed in 'Anti Terrorist Operations'. I have attended different foreign courses and also served in UN Peace keeping mission in DR Congo. I am happily married since 2005 and father of two daughters and a son.

Q

### Can you introduce your home county and recommend some tourist sites?

**SAAD** \_ Iraq is located in the Middle East region of Western Asia with a population of over 46 million, making it the 14th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Asian continent. Also, it is a federal republic consisting of 18 states. To the north, it borders Turkey; to the east, Iran; to the southeast Arabia and Kuwait; to the south, Saudi Arabia; to the southwest, Jordan; and to the west, Syria. Baghdad is the capital and the biggest city, and most of the Iraqi are Muslim. There are followers of minority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Yazidism, Mandaism, Yarsanism, and Zoroastrianism. The languages spoken are Arabic and Kurdish.

In Iraq, there are many ancient historic sites such as the Imam Ali Holy Shrine, Holy Shrine Of Imam Hussein, Abbas's Shrine, Great Ziggurat of Ur, and the Ishtar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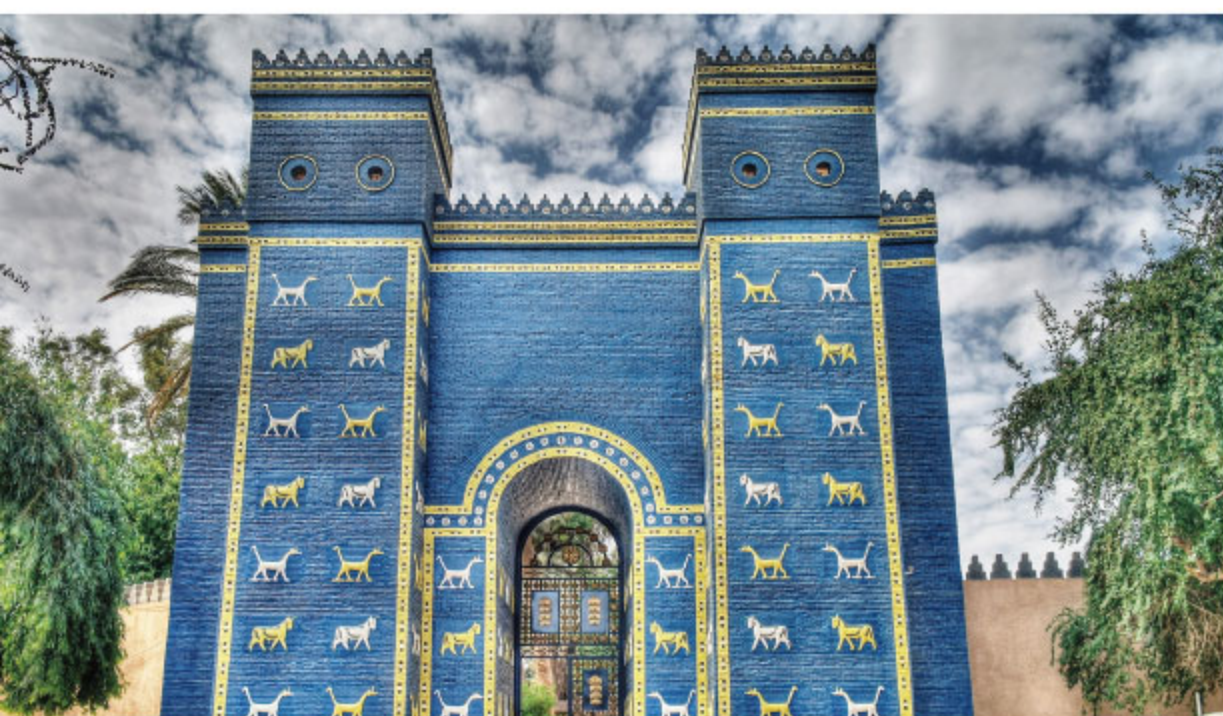




▲ Ziggurat of Ur ▲



▲ Imam Ali Holy Shrine ▲



▲ Ishtar Gate ▲



Egypt



▲ Pyramid



▲ Karnak Temple



▲ The Egyptian Museum

**Mohamed** \_ EGYPT, It's an Islamic Arabian country, It lies in the Eastern North of Africa and a small part lies in Asia (Sinai Peninsula) and Egypt h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er navigation lanes (The Suez Canal) which connects the Mediterranean sea with the Red sea.

There are a lot of unique tourist attraction places in Egypt which has a majestic history where the oldest civilization in history was founded in Egypt and that civilization is the Pharaonic civilization; that's why a lot of pharaonic monuments that are astonishing such as The Great Pyramids which is one of the 7 wonders of the world and The Great Sphinx in addition to a lot of pharaonic temples such as (Karnak Temple, Abu Simbel Temples, Luxor Temple, Mortuary Temple of Hatshepsut, etc...) and there are lot of museums too such as ( The Egyptian museum, The Grand Egyptian museum, etc,,)

Also there are famous Islamic and Christian monuments in Egypt such as (Azhar Mosque, Mohamed Ali Mosque, The hanging Church, Saint Catherine's Monastery).

There are also a lot of old making handicrafts places such as (Khan el-khalili).

Also one of the greatest rivers in the world passes through Egypt and that is the Nile River which offers trips that allow you to travel from a governorate to another such as from Cairo to Luxor which lies in the south of Egypt and it has a lot of pharaonic monuments and that trip is amazing and very amusing,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restaurants and hotels on

the banks of the Nile River and there is one of the most famous Egyptian tourist attractions on there too which is (The Cairo Tower).

Adding to that the Egyptian beaches hold a special place among the tourist attractions in Egypt due to the variety of water sports that you can practice due to the unique position of Egypt which places it between two different seas and those are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Red Sea ; The Red Sea's beach is known as one of the best places to do snorkelling and diving due to the alluring and charming sights such as the magical coral reefs that lie under the surface of the Red Sea, On the other hand, The Mediterranean Sea is known for it's white smooth sand and the blue pristine clear water which allows you to swim and play a lot of exciting water games and activities.

There are various famous and exquisite dishes in Egypt such as The Egyptian Traditional Breakfast which consists of fava beans and Falafel and salads, Also there is the Egyptian Pie which is very famous in the rural parts of Egypt and it is eaten with honey and cream. Also there are famous oriental Egyptian dishes such as (The Egyptian Koshary, Kebab and Kofta, Egyptian Fattah or mixed oriental food)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a spacious variety of Eastern desserts such as (Kunafa, Basbousa, Baklava, Egyptian Churros).

The Egyptian Culture is a unique mixture of the civilizations that were founded in Egypt before ,therefore the Egyptian culture is a mixed combination of the Pharaonic Civilization Culture, Islamic and Christian Culture and of course the Arabian Culture; all the previous cultures and more were a resultant of the foundation of the Egyptian Culture and it's very special and you won't believe that until you try it.

**ATIF** \_ As already mentioned, I belong to Pakistan. My beloved country is located in South Asia bordered with India in East, China in North, Afghanistan and Iran in west and Arabian Sea (Indian Ocean) in south. By the land mass; it is 33rd largest country whereas it is 5th most populace country in the world. Pakistan is a 'Nuclear



Pakistan



▲ K2



▲ Lahore Museum



▲ Shah Faisal Mosque

State' and falls among top 10 in 'Global Fire Power Index'. Pakistan is the site of several ancient cultures, including the 8,500-year-old Neolithic sites. Pakistan is gifted with all nature's beauty including beaches, deserts, plains and taller mountains. World's 2nd highest peak (K2) is located in Pakistan. Similarly, 3 longest glaciers in non-polar region also exists in Pakistan. It's an heaven for the tourists as besides beautiful landscape they also enjoy the rich culture, cuisine and world reckoned hospitality of Pakistani people. Pakistan is Muslim country where all other faith followers are also living in peace and complete harmony with dominant population. Islamabad is the capital and Karachi is the biggest city of the country. Pakistani cuisine is world



famous for its taste and aroma. Being meat loving nation; dishes like Biryani, Korma and Nihari (prepared with meat) are included in world's best cuisine.

Q

### How is your life in Korea?

**SAAD** \_ When I first came to Korea, because I am a Muslim I faced some challenges finding halal food. However, I have come to enjoy delicious and nutritious Korean food such as Kimchi, Gimbap, and tasty seafood. Furthermore, I am enjoying the world leading K-culture, especially singing K-pop, watching K-dramas and taking pictures wearing the beautiful Hanbok.

**Mohamed** \_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unique culture where it's known for it's huge respect towards the elders and the Korean people are known for their vastly politeness and respect towards each other and being super friendly.

Also Korea is characterized by it's alluring and magical nature and having a speci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but astonishing sight in each season of the four year seasons.

Trying the Korean food is a must to try experience and I enjoyed it with my family and our favourites were (Kimchi, Kimbap, Bibimbap).

The most interesting things in Korea are it's stunning landscape, it's culture and traditions and the advanced technology which Korea offers everywhere.

The hardest thing in Korea is the Korean Language especially when dealing and communicating with elders here in Korea and most of the apps here in Korea are in the Korean Language only which makes it hard to use as a foreigner and only by staying here in Korea and practicing the Korean Language and gaining experience; life became a lot easier now in Korea.

I advise any foreigner to get ready before coming to Korea by trying to study the Korea Language and if there aren't any methods of learning Korean in his country,

He/She can use the internet to learn and know some of the Language and the pattern of the Korean Lifestyle.

**ATIF** \_ I arrived in South Korea on 11th February 2023 and joined Korean Defense Language Institute (KDLI) to learn Korean language thereby enabling myself to undergo National Security Course at KNDU in befitting manner. My family joined me later in July 2023. Starting my stay as forced Bachelor till living in Korea with family, I cherished and enjoyed each moment in ROK as the society is not only rich in culture and traditions but it is also adoptive to foreigners. We visited many historical and amusement places, restaurants, shopping malls and always received respect, courtesy and affection. The infrastructural development,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corporation in all spheres, people centric welfare measures (e.g Healthcare insurance), matured systems focusing public facilitation and people's adaptation / commitment to rule of law not only testimony of Korean's true identification as first world country but also reflection of cultured society. Apt preservation of God gifted nature's beauty and mouth watering varieties in cuisine are another aspects of admiration. It would be unjust if I don't admire the exhibited professionalism, courtesy, affection, caring attitude and kindness of KDLI staff (especially my teachers). My KDLI teachers not only eagerly facilitated rather enhanced my prism to look towards Korean Society. The change of institution from KDLI to KNDU has further reinforced my positivity about Korean culture and society as I have served with same courtesy and kindness as received in previous institution. During my stay at Korea, only shortcoming I observed is limited facilitation to non-Korean speaking persons (less English interface enabled official, social and online shopping sites). This language barrier some times restricts your further desired exploration of society and culture. I am positive that this aspect if addressed aptly, will make Korea a must visit destination for tourists.

Q

### Do you have any goals you would like to achieve at KNDU?

**SAAD** \_ This year, I'm planning to visit several cities in Korea like Seoul, Busan and Jeju Island with my family. Also, I want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I will try to share the diverse culture and tradition that I have learned here with the Iraqi citizens when I go back. In addition, based on the knowledge I have learned at KNDU, I would like to conduct further research for a broader cooperation between Iraq and Korea in the military sector (weapons, equipments, training,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etc).

**Mohamed** \_ I want to work really hard on mastering the Korean Language since I am keen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the Korean Traditions and Korea's history.

I also want to play a big part in reinforcing and deepen the relationship and bond between Korea and Egypt. In addition to that, I want to study hard and seriously in the KNDU to understand and learn the deepest topics of National Security to take part effectively in rating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s through discussing and sharing different opinions of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who ar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ith different perspectives to create a full insight of the topics of the National Security.

After returning to my country, I would pursue my career in the Egyptian Army and to involve myself in evolving the training and arming of the Egyptian Army since It's one of the basics of National Security.

I would like to create a lot of new relations and friendships with the officers of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to assist in deepening the bond and relationship between Egypt and Korea and of course to continue visiting and exploring the other places in Korea that I haven't visited or discovered yet.

In the end, I want to than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KND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study in this deep-rooted university

to evolve and upgrade the skills of the offic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achieve a deeper vis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creating stronger bonds between the officers worldwide.

**ATIF** \_ It's indeed an honor to be part of National Security Course at KNDU. The offered curriculum and expected interactions with Korean think tanks would definitely be enhancing and improving military thought process and mental horizon. Being an eager learner of Security and Warfare studies, I expect to be more learned at the culmination of the course. Being highly influenced by values of Korean society and kindness of Korean people, I would presume myself to be an ambassador of Korea in Pakistan upon returning to my country.

Long live Pakistan-Korea friendship.

Thank you.

